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제 1623호
2017년 9월 4일 월요일
media.khu.ac.kr

대학주보

6》 이영준 신임 서울캠 후마니타스 학장 인터뷰

8》 [해외취재] 일본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2017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기간 : 2017. 09.01(금) 10:30~19:30
2017. 09.04(월) ~ 09.07(목) 10:30~19:30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 2017. 09. 07(목) ~
수강신청 학점 철회 : 2017. 09.08(금) 10:30~09.14(목)

행복기숙사 임시사용승인 촉구 시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와 50여 명의 학생들이 지난달 17일 6시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신축기숙사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승인이 났지만 단과대학동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안나연 기자)

신축 단과대학동 그림의 떡 되나

사용승인신청 불투명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서울】 지난달 26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신축 행복기숙사 입사가 시작된 가운데 SPACE21 단과대학동은 사용승인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동대문구청에서 정문 앞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내준다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 인근 지역 임대업자들의 반대와 동대문구청의 사용승인 재신청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행복기숙사보다도 더 '답없는' 상태다.

2012년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경희대 진입로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문 앞 도로가 학교의 사유지임에도 공공도로처럼 기능하고 있었으니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정문 앞 도로에 대한 경희학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동대문구청은 판결에 따라 경희학원 사유지 도로(정문 앞 도로)에 대한 현재까지의 부당이득금 14억여 원과 매년 1억 4,000만 원가량의 도로사용료를 경희학원에 지불해야 한다.

동대문구청은 경희학원에 지속적으로 부당이득금과 도로사용료의 감면 혹은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달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신청 때에도 동대문구청은 정문 앞 도로 문제를 볼모로 잡고 재신청통보를 한 바 있다. 학생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시 동대문구청은 서울캠 한균태 부총장과의 면담 이후 "경희대로(정문 앞 도로)를 공공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한다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단과대학동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동대문구청의 입장이다. 동대문구청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행복기숙사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컸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임시사용승인이 난 것"이라며 "단과대학동은 교통유발에서 차이가 나는 등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의 공공기능 유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희대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동대문구청이 건축 사용승인을 인질삼아 소송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경희학원에서 정문 앞 도로 소송을 담당하는 조병열 계장은 "단과대학동을 건설하기 전에도 그 도로는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 도로는 그대로 있다. 만약 정말 그 도로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경희대 캠퍼스에 모든 건물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동대문구의 논리는 자기모순적이며 도로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니 승인을 못내 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계획상으로는 9월 말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지만 단과대학동은 구청에서 아예 사용승인 자체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신청이 거부당할 경우 행복기숙사 건축허가 때와 동일하게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심판에는 통상적으로 약 3개월이 소모되며 그동안 신축 단과대학동은 그림의 떡이 된다.

한의과대학 학생회 윤지혜(한의학 2014) 회장은 "이번 학기 SPACE21 단과대학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준비한 것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혼란이 크다"고 밝혔다.

경희학원 조병열 계장은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과 충분히 소통할 의향이 있다"며 "다만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감면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식한 X들, 청소나하지' "우리는 사람대접이 받고 싶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 "'노조 가입하면 본사 차원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국제캠퍼스(국제캠) 청소노동자 신순남 씨가 '두레시닝'의 계약직이 되고 처음 들은 말이다. 사고나 휴가로 인한 공석을 메우는 아르바이트로 1년을 일하다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반장과 소장을 처음 만난 자리였다. 국제캠 청소 용역업체 두레시닝 소속 반장과 소장은 새로 고용된 신순남 씨와 A 씨를 앞에 두고 "만약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노조에 가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돼 본사 차원에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은근히 협박했다.

정말 간신히 얻은 자리였다. 학교에서 일하던 아는 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며 잠깐 일을 봐주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빈자리가 날 때면 학교에 와 아르바이트 하기를 몇 개월이 됐다. 대청소에 투입됐다가 생전 걸려보지 않은 대상 포진에 걸리기도 했다. "계약직 자리가 나면 바로 옮겨드릴게요." 청소 경력이 있는 순남 씨에게 반장이 한 말이다. 그러나 자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순남 씨의 차례는 두 차례나 미뤄져야 했다. 낙하산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해 2월, 드디어 정식으로 계약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은 순남 씨를 밤낮으로 괴롭게 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소장은 수시로 순남 씨가 일하는 단과대를 찾아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퇴근한 후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일 끝나고 전화로 '왜 쓸데없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했어요. '비노조를 하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계속 견뎌주시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심지어는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몰래 와서 '신순남 씨는 어떠냐?'라고 묻고 가기도 했죠. 복도에서 절 붙들고 노조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무서웠죠."

계속된 사측의 압박을 받던 순남 씨는 용역업체 두레시닝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순남 씨는 수습이 아니다'였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노조를 가입하면 안 된다'는 소장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곧바로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철노) 국제캠 지부 심규갑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다. 올해 5월, 한철노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반장과 소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고발 된 후에도 계속 된 '압박 행위'

총 3번의 노동청 조사 끝에 사측이 먼저 백기를 들었다. '문제가 된 소장과 반장을 사직처리 한다'는 내용을 걸고 합의를 요청해왔다. 노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합의서에는 반장과 소장을 7월 17일부로 직위해제, 사직처리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장과 소장이 학교에 수시로 나오고 있다고 심 지부장과 청소노동자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보이니 노조를 탈퇴했던 사람들 중 재가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눈치가 보이고, 우리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소장과 반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장은 "(용역업체) 본사 직원한테 낼 것도 있고,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간 것이지 일부러 간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소장은 "직위해제만 됐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 출근을 하기는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간 것이다"고 답했다.

▶3면으로 이어짐

전임교원확보율 4.45%p↑… 학자금 대출 이용률 9.8%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8월 공시인 ▲졸업생 학점 평균, ▲전임교원확보율, ▲학자금대출현황을 살펴봤다. 우리학교 2016년 졸업생 학점 평균은 3.3점으로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5년 1학기부터 B0룰을 시행하고 있는 경영대학 졸업생 학점 평균은 3.375점을 기록해, 2015년 졸업생 학점 평균 3.45점 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경영대학의 B0룰이 현재까지 학점 인플레이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81.57%로 지난해 77.12% 대비 4.45%p 증가 했다. 2015년 77.06%를 기록했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3년 새 계속 증가해 올해 80%를 넘었다. 또한, 재학생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임교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했다. 올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4.38명으로 지난해 25.52명보다 약간 줄었다. 전임 교원 수의 증가가 반드시 교육여건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증은 없다. 그렇지만 전임교원은 비전임교원에 비해 안정된 지위와 환경 아래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현황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학자금대출이용학생 비율은 9.8%이다.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15년 13.3%, 지난해 10.8%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학금 수혜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2015년 2,830,700원이었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지난해 2,967,900원, 올해 3,014,300원으로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4,065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16학년도 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 수도 공시됐다. 우리학교 2016학년도 전체 졸업생 수는 5,439명이며 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 수는 2,626명으로, 48.28%로 나타났다. 단, 이는 최종적인 취업률은 아니다. 대학알리미 취업률 공시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오는 12월 공시에서 정확한 취업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알림

사령

명

〈편집장〉 이수형(경제학 2015)
〈서울뉴스팀장〉 양윤주(언론정보학 2016)
〈기획뉴스팀장〉 박지영(언론정보학 2016)
〈국제뉴스팀장〉 설지연(프랑스어학 2015)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학년,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일정 : 9월 1일 부터 11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참조
(www.mediakhu.ac.kr/khunews)